월간
기업경제

HRI Business Economics

10 1993 OCTOBER

월간기업경제 / 등록번호 : 라 6125 / 등록일자 : 1993년 7월 8일 / 발행일자 : 1993년 10월 4일 / 발행 및 편집인 : 배성동 / 발행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주소 : 150 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4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462호 / 전화 : 784 6545~9, FAX 784 6583 / 인쇄소 : 서울컴퓨터인쇄사

94년 경제를 꾸려가는 지혜 / 정순원

1993년 세제 개혁(안) 평가 / 안종범
1994년 예산(안)의 개요와 특징 / 동향분석팀

엔고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 유병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르는 시중 금리 전망 / 손영기
실명제 완료 후의 증시 전망 / 박종곤

중국 철강 시장의 잠재력과 대중국 수출 / 박재원
세계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한 한국 반도체 산업 / 주대영
신기술 정보 / 심재철

동남아 석유화학 시장 전망 / 백운대
'55년 체제' 붕괴가 '일본 개혁'을 의미하는가 / 홍근철
등소평 사후 중국 정치경제의 전망 / 금희연

새로운 기업 파산 예측 모형의 개발 / 김주현, 천일영

변하는 사회, 변할 사회 -「신사고」가 필요하다 / 정범구

금융 산업 개편에 따르는 증권 시장의 변화 / 강천모

회원사용

Editor's Column

94년 경제를 꾸려가는 지혜

鄭 淳 元*

93년 우리 경제의 흐름에 관한 정부 및 국내 연구기관들의 전망치가 크게 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NP나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관한 기획원, 한국은행 및 각 연구기관들의 예상이 1% 포인트 정도 또는 그 이상 빗나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IMF나 IBRD, 또는 기타 세계적으로 유수한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93년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치들도 비교적 큰 오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 예측 오차는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오차를 지금보다 줄여서 좀 더 정확한 경제 전망을 할 방도는 없는 것인가? 이는 경제 정책의 입안자뿐만 아니라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신규 투자를 실행하는 일반 기업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 예측이 잘 들어 맞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거시경제 모형에 의한 경제 예측이라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국의 경제를 몇 개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의 움직임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필연적으로 얼마간의 오차를 내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부문별로 추정된 방정식이 정교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이러한 방법에 의해 구해진 전망치들이 經濟外的인 요소를 감안해서 수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외적인 요인에 대한 전망이 정확성을 갖기는 무척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서 있고 국제 정치 상황도 급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우리 경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과거 고도 성장에 젖어온 전망 기관의 자세이다. 국내외 여건상 향후 고도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경제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경제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실증분석의 기술이 보다 세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거시경제적인 접근 방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산업별 경제 전망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제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도 경제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 연구실장,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거시경제 이론 전공

다음으로는 예측치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예측 오차의 축소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측치는 경제 변수의 미래 움직임에 대한 평균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예측치가 발표되면 경제 주체들이 그 예측치를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예측이 더 빗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 예측 특히 거시경제 변수들의 전망에 있어 장기적인 추세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 전망에 사용되는 기법은 모두가 경제 변수의 과거 움직임을 기초로 하여 미래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전망치란 미래 지향적이고 시장을 선도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개별 기업이 사업계획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망된 경제 규모의 확대에 무조건적으로 발맞추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이제 10월이면 내년도 경제에 관한 정부 및 각 연구기관의 예측치가 발표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예측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전제하고 있다. 우선 세계 경제의 회복은 예상보다 훨씬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동의 경기는 그런대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나 유럽은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 경기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중국 및 동남아는 그동안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94년 국내 경제의 가장 큰 활동 변수는 정부의 재정수지 흐름이다. 이미 공공 요금 인상이 93년 수준 못지 않게 계획되어 있고 93년의 재정적자 규모도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재정 지출 요인은 줄이기 힘든 반면, 세수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한 세수 증가 요인이 경기 침체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건대 기업의 94년도 사업 계획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바탕위에서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할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개선에 치중, 즉 단순히 기업의 매출액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투자 확대, 기술 개발, 임직원의 의식 개혁 등 기업의 구조를 혁신하는데 한정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 부문의 노력이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이라는 안목에서 경제운용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조바심으로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경제 전반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부문에 활용하는 한편 과감한 행정 제도의 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율과 책임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경제 구조의 개편 및 장기적인 경기 부양은 기업의 몫으로 남겨놓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